

실물경제 불확실, 시장이 움직이지 않는다.③

지금은 위험은 분산하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새로운 전략이 필요합니다.
대신[Balance] 롱숏펀드 랩

2017년 1월 13일 13:00 ~ 14:00

다들 물어봐

다들 물어봐

오늘의 날씨 | 호림 | 기온 -8℃/0℃

2017년 1월 13일 금요일 (음력 12월 13일)

석간

"자기가, 말은 안했지만
와이셔츠 다림질 참 힘들어!"

오늘, 아내의 속마음에 귀 기울여주세요. 와이셔츠 세탁서비스

3000원

3000원

구독신청 02-722-8165

제 726호

www.christiandaily.co.kr



“돕기 위해 떠나요”

지난 10일 발대식을 통해 (사)라이프오브더칠드런과 한신대학교가 네팔의 해외 소외계층을 돕기 위한 봉사활동에 나섰다.
라이프오브더칠드런

“이슬람, 단순 종교 아닌 시스템이며 이데올로기”

한국이슬람대책협 창립대회 열려 이혜훈 의원·김윤생 목사 등 강연

‘한국이슬람대책협의회’(이하 협의회)가 12일 낮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창립 대회를 갖고, 국내 이슬람교 확장에 따른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특별히 김윤생 목사(협의회 연구위원장)는 인텐시브 강의를 전했다. 그는 “많은 이들이 이슬람교를 단순히 종교로만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데, 실상 이슬람교는 종교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면서 “이슬람교는 단순히 종교의 영역에만 국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시스템’이며 ‘이데올로기’임을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슬람 사회에서 출생한 무슬림은 근본적으로 이슬람이라는 한 시스템 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해 나가야만 하는 태생적 무슬림이 될 수밖에 없다. 때문에

김 목사는 “이슬람에 대해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 종교 등 모든 영역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동시에 이슬람의 역사적인 배경과 원리를 이해할 때, 비로소 국내 이슬람교의 확장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다”고 이야기 했다.

이어 김 목사는 이슬람의 역사와 원리(교리), 국내 이슬람의 현황에 대해 설명한 후 향후대책을 논의하고 기도제목을 나눴다.

그는 현재 잘 알려진 이슬람 확장 정책인 ‘할랄’ ‘수쿠크’ 등에 대해 “이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말하고, “모든 분야에서 이슬람화는 시간이 흐를수록 점진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고 했다. 특히 김 목사는 “한국에서

이슬람교 확장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호주의 경우를 살펴봄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정치적, 법조계, 경제계, 학계, 사회 방송 문화 신문 잡지 및 종교계, 체육계 등 모든 분야에서 기독교인들이 이슬람에 대한 바른 지식을 배워 각 분야에서 이슬람에 대해 바른 목소리를 내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정부와 시민단체들에게도 이슬람의 위험성에 대해 꾸준히 알리는 작업이 필요하다”면서 “현재 국내 이슬람화는 대학 캠퍼스, 특히 4개 대학 5개 아랍어 학과와 이슬람 학회, 연구소 등이 중심되어 진행 중이지만, 기독교계에서는 변변한 학회나 연구소가 몇 군데 밖에 없는 형편”이라며 “특히 국내 이슬람교 현황을 연구하는 단체는 더더욱 찾아보기 힘들 정도”라 지적했다.

때문에 김 목사는 “한국교회가 기도하며 한 마음으로 국내 이슬람화를 잘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슬람을 제대로 알기 위한 교육이나 범 교단과 교계를 통해 적극적으로 실천되어야 하며, 특히 청

소년과 여성들에게 이슬람 교육이 매우 시급하다”고 했다. 더불어 “목회자들이 솔선수범해 이슬람을 먼저 잘 이해하도록 노력하고, 이를 교회에서 교육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때, 우리 후세들에게는 유익처럼 이슬람화의 비극을 물려주지 않게 될 것을 확신 한다”고 이야기 했다.

한편 강의 전 열린 협의회 창립예배에는 이봉철B 목사(전국지역지부 총괄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전태 목사(예장고신 전 이대위원장)와 이봉철A 목사(협의회의 서기, 대변인)가 각각 대표기도와 성경봉독을 한 후 전계현 목사(예장합동 부총회장)가 “만군의 여호와와 이름으로”(삼상17:45~47)란 주제로 설교를 전했다.

이어 권순직 목사(예장합동 이슬람대책위원장)와 고정영 목사(협의회 대표)가 각각 격려사와 인사말을 전했으며, 예배는 유종국 목사(예장대신 부총회장)의 축도로 마무리 됐다. 이어 이혜훈 의원이 이슬람에 대한 특강을 전하기도 했다.

홍은혜 기자

라이프오브더칠드런과 한신대, 네팔 돕기 위한 봉사활동 출발

국제구호개발 NGO인 (사)라이프오브더칠드런과 한신대학교가 해외 소외계층을 돕기 위해 네팔로 떠난다.

12기 해외봉사단 ‘도담도담’은 1월 10일 발대식을 시작으로 12일부터 27일까지 2주간 네팔 봉사활동에 나선다. 이에 21명의 봉사단원들은 라이프오브더칠드런의 협력 사업지역인 네팔 바글통과 포카라 등지에서 현지 학생들을 위해 준비한 문화교류 프로그램을 실시해 글로벌 서번트십을 실현한다.

봉사단은 미술과 음악 활동을 통해 교양의 질을 높여주는 교육봉사, 배구장 설

치와 벽화그리기 등 다양한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노력봉사, 장애학생을 위한 체육교실, 태권도와 K-POP 등 한국 문화를 교류하는 문화 페스티벌 등 현지 학생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교육·문화 활동을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라이프오브더칠드런은 2015년 3월 한신대학교와 산학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저개발국가 지원, 해외봉사 프로그램 운영 등을 함께 추진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더불어 글로벌 리더 양성에 앞장서고 있다.

이나래 기자

실패했던 기독교자유당, 대선 출마 선언한 장성민과 함께 부활 꿈꾸나

‘8천만 민족복음화 지도자포럼’ 신년하례예배 김승규 장로·전광훈 목사 노골적 지지 보내

지난해 초 총선에서 실패한 기독교자유당이 이번에는 대선을 통해 다시 부활(?)을 꿈꾸는 것일까? 대선에 출마하는 한 후보와 맞물려 기독교자유당 관계자들의 행보가 예사롭지 않다. 12일 연세대에서는 ‘2017 8천만 민족복음화 지도자포럼’의 신년하례예배가 열렸다. 그런데 이튿날 대면 알만한 교계 지도자들이 모인 집사(여의도순복음교회, 전 국회의원)의 지지를 노골적으로 호소하는 모임이

되어 버렸다.

장 집사를 적극적으로 교계 인사들에게 소개한 이들은 과거 기독교자유당에 깊이 관여했던 김승규 장로(전 법무부 장관)와 전광훈 목사(사랑제일교회)이다.

전광훈 목사는 축사를 통해 먼저 “이승만이 성경으로 대한민국을 설계했다”고 말하고, “대한민국 헌법 역시 성경을 기초로 한 것 아니겠느냐”면서 지난해 초 총선 때 기독교자유당 비례대표 2인을 못낸 것이 못내 아쉽다는 이야기를 했다.

때문에 전 목사는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버리셨는가?” ‘이승만 만큼의 사람은 없는가?’를 고민했다”고 말하고, “기도하던 중 사람을 하나 찾았다”면서 “이 나라가 예수한국이 될 줄 믿는다”고 이야기 했다.

그 기도하던 중 찾은 한 사람이 장성민 집사라는 이야기다.

김승규 장로도 강사를 소개하며 “이런 때가 없었다 할 정도로(심각한 상황이지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정치적 혼란은 해결될 것”이라 말하고, “훌륭한 지도자가 없는지 찾았는데, 응답이 있었다”면서 “과연 이 사람이 우리 조국을 신앙 가운데 바르게 지도할 수 있는가를 판단해 달라”고 이야기 했다.

장성민 집사는 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서로 총애를 받았던 인물로, 전 새천년민주당 의원이었으며, TV조선 ‘시사탐크’의 진행자이기도 하다. 그는 “남북통일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란 주제로 강연을 했는데, 먼저 신앙적인 배경의 집안을 소개하고, 자신도 ‘링컨’을 본받아 ‘노예 해방’(김정은 정권 하에 있는 북한 사람들을 비유)과 ‘통합’(남북전쟁에도 불구하고 미국 통합을 이뤘던 링컨의 통합 리더십을 들며)의 아이콘이 되고 싶다는 뜻을 보였다.

자리가 자리이니만큼, 장 집사는 대한민국 상황과 신앙을 적절히 조화시켜 가며 강연을 진행했다. 그는 현 탄핵정국을 “우리 스스로 급소를 내줘 무너뜨리는

행국이다. 97년 IMF보다 더 무서운 상황인데, 우리가 너무 불감증에 빠져 있다”고 표현했고, “한미동맹 때문에 대통령이 직무정지를 당해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이야기 할 수 있는 것”이라 말하기도 했다.

장 집사는 오는 17일 오후 2시 장충체육관에서 자신의 저서 출판기념회를 가지며 공식적으로 대선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매체는 그가 국민의당에 입당한 후, 안철수 등과 경선을 통해 대선 후보가 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전광훈 목사는 그런 그를 지지하며 출판기념회에 참석해줄 것을 적극 독려하기도 했다.

한편 김원철 목사(삼일준비위원장)의

사회로 열린 1부 예배에서는 이태희 목사(명예총재)가 환영사 및 취지설명을 했으며, 박영길 목사(기획준비위원장)가 대표기도를 한 후 이영훈 목사(대표회장)가 “성령의 능력으로”(행10:38)란 주제로 설교를 했다.

이후 김병호 목사(운영위원장)의 인도로 참석자들은 함께 “교회개혁, 사회변혁, 민족통일, 세계평화”를 위해 기도했으며, 정의화 전 국회의장이 인사말을 전하고 박종순 목사(한기총 중경대표회장) 최성규 목사(국민대통합위원장) 김자연 목사(한기총 중경대표회장)가 격려사를 했다.

또 이용규 목사(한기총 중경대표회장)와 전광훈 목사가 축사를 했다.

박용국 기자

“아프리카 문화·전통의 영향을 이교·미신이라 치부? 지양해야”

한국선교연구원, 2017 상반기 한국 선교학 포럼 아프리카 교육 사역자 문대원 선교사 초청 강연



문대원 선교사(아프리카 부룬디 International Leadership University, 교회사와 세계 기독교), 홍은혜 기자

기독교의 중심이 점차 남반구로 옮겨가는 것을 확인했던 20세기 중반 이후로, 세계 선교학계에서는 서양 종교가 아닌 세계 기독교로서의 기독교에 대한 학문적 논의가 활발하다. 세계 기독교(World Christianity)라는 새로운 학문의 분야는 서양 중심의 제도권적인 기독교가 아니라, 복음이 전 세계의 다양한 문화와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쳐왔는지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한국선교연구원(KriM)의 2017 상반기 한국 선교학 포럼에서는 아프리카 독립 교회와 조상 숭배의 사례를 통해서, 세계 기독교의 보편화(universalization)와 개별화(particularization) 과정의 복잡한 상호작용에 대해서 고찰해 보고자 문대원 선교사(아프리카 부룬디 International Leadership University, 교회사와 세계 기독교)를 초청, “아프리카 독립교회와 조상숭배”라는 주제로 강연을 들었다. 그는 미국 보스턴 대학교에서 Dana Robert 교수의 지도하에 세계 기독교와 아프리카 기독교를 연구하고 있다. 문대원 선교사에 따르면, 19세기 후반의 저명한 인류학자 에드워드 타일러와 제임스 프래저 등은 ‘조상 숭배’를 원시 종교의 확정적인 표정으로 간주했다고 한다. 이들은 종교 진화론적 관점에서 세계 종교들을 분석하며 애니미즘(animism)을 가장 단순화 된 저등 종교(혹은 원시 종교)로 인식했는데, 애니미즘 종교관의 핵심 중 하나로 조상 숭배를 꼽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식민시대의 종말과 세계화의 도

래와 함께, 조상 숭배와 같은 아프리카 전통 관습에 대한 이전의 오래된 인식은 근본적인 변화를 겪게 된다. 문 선교사는 “20세기 중반 이후로 많은 학자들이 아프리카에서 조상이 가진 사회학적, 현상학적 가치와 의미를 인정하기 시작했다”면서 “특히 아프리카 독립교회의 현격한 부상은, 조상과 관련된 아프리카인들의 전통적 종교 관습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요구하게 됐다”고 이야기 했다. 이는 아프리카 독립교회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조상과 연관된 믿음, 그리고 행동을 그들의 아프리카 정체성의 중대한 부분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문 선교사는 “아프리카의 종교적 세계관에서 조상이 차지하고 있는 역할과 중요성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아프리카 독립교회가 조상과 연관된 종교 의식을 어떻게 그들의 기독교 신앙 안에 포함하게 되었는지를 논하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문 선교사에 따르면, 아프리카의 전통 세계관에서 죽은 자들은 쉽게 잊혀지지 않고, 생존하는 가족들의 일상 생활에서 계속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이것은 현재 아프리카에 살고 있는 많은 이들에게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한다. 문 선교사는 “그런 면에서 아프리카인들은 망자(the dead)들과 끊임없이 교통하며 함께 살아가고 있는 셈”이라며 “이것이 바로 많은 아프리카 기독교인들이 회심 이후에도 여전히 조상에 대한 믿음을 계속 갖고 있는 이유”라 했다. 더 나아가서 아프리카인들은 그들의 일상 여러 부분에서 매우 종교적이다. 그들에게 종교의 영역과 세속의 영역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고, 영적인 문제와 물질적인 문제도 뚜렷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다. 때문에 문 선교사는 “그들 삶의 총체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해, 아프리카 기독교는 아프리카 전통 종교의 다양한 의식을 변화시켜 기독교 신앙과 결합하고자 노력했다”면서 “이 과정은 매우 진지하고 신중한 신학적 고찰을 필요로 하는 동시에, 아프리카와 서양의 전통 모두에 진실



한국선교연구원의 '2017 상반기 한국 선교학 포럼'이 열리고 있는 남서울교회 비전센터. 홍은혜 기자

되게 열려 있어야 한다”고 했다. 역사적으로 기독교 신앙이 서양의 문화와 전통의 영향을 많이 받으며 변화한 만큼, 아프리카의 문화와 전통의 영향을 모두 이교적이고 미신적으로 치부하는 것은 지양해야 할 자세한 것이다. 아프리카 독립교회는 복음을 아프리카의 문화적, 사회적 상황에 맞게 변화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 왔다. 문 선교사는 “아프리카 기독교인들이 스스로 그들의 전통 문화와 종교에서 어떤 것을 받아들이고 어떤 것을 거절할 것인지 결정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말하고, 무엇보다 “아프리카 독립교회의 가장 큰 공헌은 기독교를 더 이상 서양의 종교가 아닌, 그들 자신의 신앙으로 변화시킨 일”이라며 “조상과 연관된 의식을 정화하고, 변화시키고, 보존하는 사명 역시 아프리카 독립교회가 감당해야 할 일”이라 했다. 그리고 문 선교사는 “아프리카 독립교회가 아프리카인들이 그들의 아프리카 정체성을 포기하지 않고 기독교인이 될 수 있는 기회와 공간을 제공했다”고 했다. 더불어 “20세기 중반부터 등장한 ‘세계 기독교’에 대한 담론은 보편적 진리로서 기독교가 전 세계의 다양한 문화에서 발견되고 받아들여질 뿐만 아니라, 그 문화

를 보존하고 변화시키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데 크게 기여했다”면서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아프리카 독립교회를 이해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역사적으로 서구 신학자들이 기독교를 그리스도의 본성에 대한 철학적인 관점으로 연구한 반면, 아프리카 신학자들은 기독교를 그리스도의 능력과 역사에 대한 실존적인 관점으로 바라봤다고 한다. 때문에 문 선교사는 “아프리카 기독교인들이 오늘날 현실 세계에서 질병과 기근, 가난과 약한 영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고 구원하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경험적으로 고찰하며, 아프리카 전통 종교에서 조상이 가졌던 중재자의 역할을 가장 완벽하게 구현하고 완성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문 선교사는 “아프리카 사회에서 조상이 내포하는 이미지가 가감 없이 그리스도도 전이 되는 심각한 기독교론적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아프리카인들의 전통과 정체성을 단순히 이교적으로 치부하지 않는 건실 있는 신학적 자세가 더욱 절실히 요청 된다”고 이야기 했다. 한편 행사는 12일 오후 2시, 남서울교회 비전센터에서 열렸다.

홍은혜 기자

박은성 목사, 나성영락교회 담임목사로 확정

박은성 목사(41)가 나성영락교회의 새 담임목사로 확정됐다. 나성영락교회는 8일(현지시간) 제직총회에서 담임목사 청빙을 위한 투표를 진행해 박은성 목사에 대한 청빙을 결의했다. 앞서 이 교회 청빙위원회와 당회는 이미 박 목사를 청빙하기로 결의한 상태였다. 해외한인장로회 교단법상 제직회 결의 과반 이상이면 담임목사 청빙이 가능하

다. 노회로부터 위임목사 자격을 얻으면 공의회 3분의 2 이상의 가결이 필요하다. 장로회신학대학교(Th.B.)와 장로회신학대학원(M.Div.), 콜롬비아신학대학원(Th.M.), 드류대학 신학대학원(Ph.D.)을 차례로 졸업한 박은성 목사는 PCUSA에서 목사안수를 받았고, 현재 서울 명성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하고 있다.

LA기독교일보



박은성 목사가 신년 첫 주일에 나성영락교회에서 설교하는 모습.

www.christiandaily.co.kr		
사장·발행인 김광수	일반편집장 장세규	교계편집장 김규진
136-075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53 / 전화안내 02-739-8119 / 팩스 02-739-8120		
대표메일 corp@cdaily.co.kr	광고 및 구독문의 070-4352-2480	
기사제보 press@cdaily.co.kr	대표구좌 SC은행 130-20-571787	
구독신청 1년 180,000원 / 6개월 90,000원 / 1개월 15,000원	우리은행 1005-301-884992	
미주 기독교일보 www.christianitydaily.com		
1990년 7월 19일 창간된 기독교일보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영사와 함께 읽는 철학동화-철학하는 마미

코트는 없어졌지만, 검소한 삶의 자세는 전통으로 남았어!

할아버지의 코트

스쿨 라이브러리 저널 선정 '2014 최고의 어린이책'

미국땅에서 할아버지가 처음으로 장만한 코트 한 벌. 할아버지는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그 코트를 입었어요. 낡고 해져서 더 이상 못 입을 지경이 된 코트를 버렸냐고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글썽, 낡은 코트로 재킷을 만들고, 또 재킷으로 조끼를 만들고, 그 조끼로 넥타이를 만들었대요. 할아버지는 그때마다 이렇게 외쳤어요, “아무렴, 여전히 쓸 만해.”

헤엄고, 오래되고, 물품없던 것도 소중히 다루고, 오래 간직하면 특별한 의미를 지닌 것으로 변신해요. 진정한 영품은 내가 만들고 가꾸는 거예요. - 한복 디자이너·보자기 마티스트 이호제

글썽이집스웨츠 | 그림 바버라 메를린독 | 책살이호제 | 36쪽 | 9,500원

전국 서점 및 온라인 서점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도서 본지 02-726-7888 이마주

“민족주의 물결, 아시아 박해 순위 상승시켜”

오픈도어선교회가 발표한 2017년 박해의 동향에 대해

민족주의(Nationalism)의 물결은 2016년에 전 세계를 강타했다. 서구에서는 불평등, 이주, 세계화 및 성장 문화에 대한 두려움에 기인해서 반체제적인 형태를 취했다. 그러나 아시아에서는 이 민족주의는 반소수민족(anti-minorities) 형태를 취했으며, 종교적 민족주의와 정부의 불안정에 의해 더욱 극단적으로 성장했다.

파키스탄은 WWL 2017년 4위로 상승하여 나이지리아 북부를 훨씬 넘어서는 폭력 수준을 보였다. 인도는 힌두 민족주의자들이 교회를 폭파하면서 박해순위 15위에 진입해 지금까지 중 가장 높은 순위에 올랐다. 전쟁으로 찢어진 에티오피아 제외하고 WWL 2017에서 가장 많은 점수를 얻은 국가는 아시아에서 나왔다. 라오스, 방글라데시, 베트남, 부탄내의 소수 기독교인들의 상황은 악화되었고, 불교 민족주의는 스리랑카를 50위로 끌어 올렸다. 중국에서도 심상치 않은 점은 외국인 혐오증으로 인해 기독교인들을 적대적인 외국세력으로 간주하고, 경계하는 새로운 규정이 생겨났다. 실제로, 베이징에 있는 한 외국 기독교인은 당국으로부터 1년에 한 번 해당 공안의 조사가 있을 것을 통보 받았다. 그러나 현재 감시의 수위는 높아졌고 일주일에 두 번의 방문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여전히 이슬람 세력의 억압은 상위 50개 박해국가의 지배적인 박해요인이다. 중동과 북아프리카는 대부분 이슬람의 영향력 아래 있는 지역이다. 이슬람의 폭력은 상위 20개 국가 중, 14개 국가와 50개 국가 중, 35개 국가의 주된 박해 요인이다. 북한과 에리트레아는 이슬람 극단주의와 상관없이 기독교인을 박해하는 유일한 예외이다.

1. 아시아의 종교 민족주의가 가속화되고 있다.

종교 민족주의는 1990년대 중반 이후로 속도를 올리고 있지만, 2014년 5월에 인도 모디(Modii)의 압도적인 선거 승리로 더 높은 수준으로 올라갔다. 힌두 민족주의자들은 인도 사람들의 대다수가 살고 있는 시골 지역으로 그 세력을 확장했다. 600,000명 이상의 극단주의자들은 가정을 급진적으로 바꾸기 위해 학교에서 훈련되었다. 현재 델리에 있는 많은 목사가 매질을 당하고, 교회가 불타고, 괴롭힘을 당하는 사건이 한 달 평균 40건이 보고되고 있다. 지난 한 해에만 8명의 기독교인이 신앙으로 살해되었다. 이러한 폭력뿐만 아니라, 인도 사회의 모든 측면에서 자유가 줄어들고 힌두교 급진주

의자들은 정부로부터 사실상 폭력에 대한 면죄부를 받고 있다. 인도 교회는 6천 4백만 명으로 엄청난 규모이며, 3천 9백만 명이 직접적인 박해의 소용돌이에 휩싸여 있다. 불교 민족주의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부탄 정부는 기독교인을 전혀 부탄인으로 여기지 않고, 정당한 시민의 권리를 허용하고 있지 않다. 새로운 전자 신분증 시스템은 기독교 소수 민족의 일부를 무시하고 수많은 차별을 초래하고 있다.

2. 아시아 정부의 불안정과 민족주의의 카드

민족주의는 항상 불안한 정부가 사용하는 카드이다. 베트남 정부는 새로운 정부를 출범 시켰고, 말레이시아의 지도자는 부패 혐의로 압력을 받고 있다. 중국의 시진핑(Xi Jinping) 주석은 종교를 가지더라도 반드시 전통적인 유교에 속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민족주의를 주장하고 있다. 유교는 실제로 종교가 아니라 일련의 도덕적 의무이기 때문에 민족주의를 강화하는데 효과적이다. 스리랑카인은 모두 불교도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말레이 사람이 되는 것은 무슬림이 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라오스는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절망적이고 편협증적인 독재정부를 가지고 있으며, 부족의 신자들은 국가와 부족으로부터 이중적인 박해를 감당해야만 한다. 지난해 베트남에서도 기독교인에 대한 살해가 3건이나 발생했다.

3. 사하라사막 이남의 아프리카에서의 이슬람 급진주의의 득세

사하라사막 이남의 아프리카는 알샤바(Al-Shabaab)와 보코하람(Boko Haram)과 같은 이슬람 무장 반란자들의 악의적인 득세로 인해 수년간 헤드 라인을 장식해 왔다. 2016년 11월 유엔의 보고에 의하면, 보코하람으로 인해 8백만 명의 아프리카 인들이 긴급 상황과 기아로 고통당했다. 올해 알샤바 무장 세력에 의해 적어도 12명의 기독교인이 소말리아에서 살해됐다. 그러나 잘 알려지지 않은 것은 이슬람세력의 투쟁이 사회의 더 많은 분야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것이다. 과거에 급진주의자들은 무슬림들을 지원할 목적으로만 폭력의 목표를 세웠지만, 지금은 특히 사우디의 후한 자금 지원으로 소말리아, 케냐, 니제르, 부르키나 파소(Urkina Faso)에 새로운 극단주의자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방 정부 건부들을 대상으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회교 사원을 건설하고, 사무실을 운영하는 사람들을 후원하며, 이 나라들 대부분에서 박해를 조장하는 것은 폭력뿐 아니라 개인, 가족, 지역 사회, 교회 및 국가 생활의 5개 영역에서의 심한 압박이다.

기독교가 주류인 케냐는 아직도 20위 안에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다. 나이로비에서 기독교 목회자들은 사설 보안 회사

를 고용하여 교회 출입문에서 금속 탐지기를 설치해야만 한다. 나이지리아 중부 지역의 하우사풀라니 목동(Hausa-Fulani herdsmen)은 수천 명의 기독교인을 그들의 땅에서 몰아냈다. 지역 기독교인 말한 것처럼 소말리아(2위)에서는 모든 것이 기독교인에 반대하며, 수단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정부의 공격 목표가 되고 있다. 말리는 실제로 WWL 2017에서 가장 높은 순위를 이용했다(32위에서 12위로).

4. 중동은 보다 급진적이고 독재적인 체제를 사이에서 양극화되었다.

중동에서 올해 4명의 선교사 자매가 살해되었다. 이란과 미국이 협상을 시작한 이래로 사상 최대 규모의 가정교회 기독교인들을 체포했으며, 많은 사람들이 막대한 벌금을 내고 생계를 잃고 있다. 그러나 일부 이슬람교도들은 이슬람의 추악한 얼굴을 보고 그것에서 벗어나고픈 열망가운데 기독교로 개종했다. 이른바 MBBS, 무슬림배경의 신자가 되었다. 또한 다른 무슬림들은 더 근본주의적인 성향을 가지게 되었다. 이런 종파 분열은 많은 분야에서 증가하고 있다. 이런 급진적인 세력과는 달리 극단주의자들과 싸우는 시리아, 이집트, 알제리와 같은 독재정권 그룹이 있다. 시리아는 올해 러시아의 군사 지원을 받았다. 정부가 운영하는 지역의 시리아 기독교인들은 많은 경우 이전처럼 많은 자유를 누리고 있으며,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이제 반란군의 영토를 탈출했다.

5. 기독교인은 그들의 신앙 때문에 이전보다 더 많은 나라에서 살해되고 있다.

지난 10년간 기독교 순교가 많이 발생한 아프리카 사하라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지역에서 살해된 기독교인들의 슬픈 희생은 아픈 일상이었다. 그러나 WWL 2017보고 기간에 기록된 가장 널리 퍼진 폭력은 파키스탄에 있었다. 이슬람 무장 세력은 부활 주일, 라호르(Lahore) 공공 공원에서 기독교인들을 공격해 수십 명이 사망했다. 방글라데시 또한 1년 동안 기독교인들이 섬 없는 공격을 경험했는데, 이는 정부를 놀라게 했다. 무슬림 배경 신자들뿐만 아니라 다른 기독교인들도 스스로를 폭력의 희생자로 생각했다. 중부 고지대베트남에서 3명의 기독교인이 살해됐는데, 거기에는 거대한 소수 민족들 사이에 대형 교회가 있었다. 한 신자는 작은 라오스 마을에서 살해되었다. 큰 영토가 마피아나 케밀라들에 의해 통제되는 라틴 아메리카에서 부패에 대항하면 치명적일 수 있다. 23명의 기독교 지도자가 멕시코에서, 4명이 컬럼비아에서 사망했다. 올해와 같이 그리스도인의 살해가 보다 지리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기간은 드물다. 이상하게도 시리아와 이라크에서

살해된 기독교인에 관한 보고서는 거의 없었다. 이는 2014년에 이슬람 국가(IS)가 칼피프로 세운 영토를 이미 떠났기 때문이다.

[박해 중 좋은 소식]

박해가 “좋은 소식”을 담은 것은 거의 불가능 하지만, 나라의 많은 기독교인들은 그들의 박해가 종종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 선을 이룬다고 말하고 있다.

1. 중국의 가정 교회가 더 토착화 될 수 있는 새로운 기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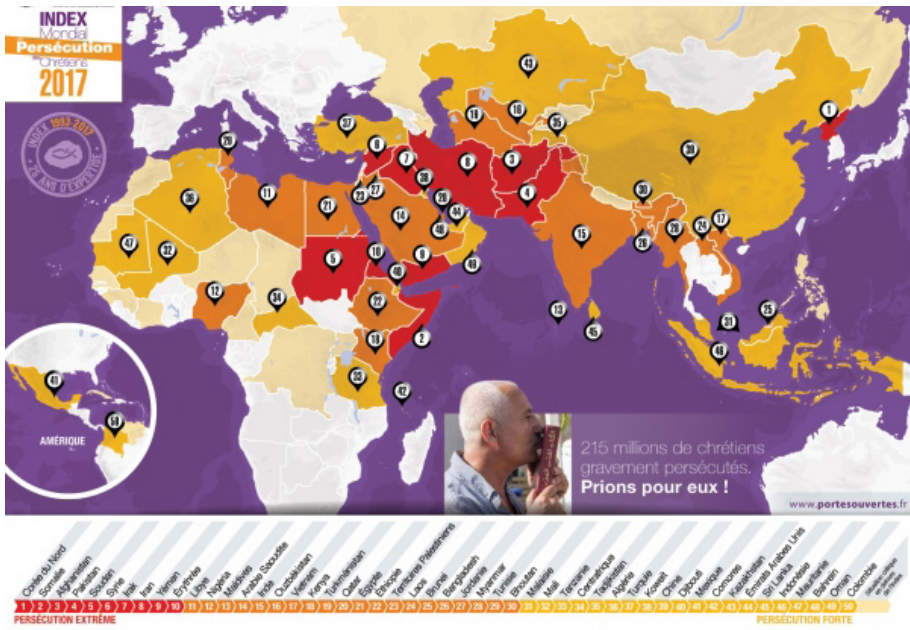
97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중국의 기독교인이다. 그러나 6천만 명 이상의 기독교인들이 서구 교회와 비슷한 예배 구조 속에 있다. 2012년 이래로 중국 정부의 기독교에 대한 불규칙적인 재제가 증가되어왔다. 이에 대해, 상하이에 있는 한 목사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한다. 그는 2년 전 빠르게 성장하는 교회에 놀란 정부의 규제로 교회를 달아야만 했다. 회중은 해산 명령에 맞서 얼마 동안 공원에서 만났다. 그러나 이제 그는 상황을 다르게 본다. “우리는 서구 교회를 맹목적으로 복사 해왔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박해를 가져와 우리가 거대한 교회를 짓고 다른 사람들을 모방하는 것을 막습니다. 이제 우리는 소그룹으로 흩어져야 했기 때문에 진정한 토착교회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 무슬림 배경 인도네시아의 신자들은 새로운 신앙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

세상에는 무슬림배경의신자(MBBS)보다 더 어려움에 처한 기독교인은 많지 않다.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신앙을 비밀로 유지해야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족, 부족 및 사회의 적대감에 매일 직면한다. 그러나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 세계 최대의 이슬람 인구를 가진 인도네시아에서 새로운 종류의 무슬림배경의신자가 등장하고 있다. 이들은 독립적이고 강력하며 두려움이 없다. 숫자가 많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 한 보고자에 의하면 이들은 기존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한 그리스도인과 같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들은 교회의 새로운 물결을 형성 할 것이다. 그것은 성경적이며 활기찬 것이며, 그들은 세상을 축복 할 것입니다.

3. 지금 현재, 중동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출애굽”이 현저하게 늦어지고 있다.

중동의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은 고통으로 인해 이 지역의 국경을 넘었음직도 모르지만, 지난 잠시 동안 그 이동이 현저히 줄어들고 있다. 걸프만에 있는 이주자와 외국인 크리스천을 포함하여 중동과



오픈도어 선교회의 기독교 박해 순위(Open Doors World Watch List, WWL) 지도
오픈도어 선교회 제공

터키의 기독교인 수를 현재 1,650 만 명으로 추산합니다.

4. 일부 이민자들은 서구 교회에 새로운 삶을 가져다주고 있다.

유럽에 입국하는 이주 인구 중 기독교인의 숫자는 상대적으로 적지만 독일, 스웨덴, 영국 등 이민자들을 환영하는 나라의 교회들도 그들이 기증자가 아니라 수용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많은 도시의 기독교인들은 현지 언어를 가르치기 위해 시간과 기술을 자발적으로 지원해 왔으며, 이는 교회 전체로 연결되어 있다. 일부 무슬림 이민자들은 기독교로 개종했으며 망명 신청을 개선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윤리적 우려를 나타내고 있지만 일부 신자들은 짧은 신자들의 새로운 유입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 최근 케임브리지 교회의 한 목사에 따르면, 영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새로운 그리스도인들로부터 소생되었다고 느끼고 있다. 그들은 서로 다른 질문과 놀라운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새로운 호기심이 기존 신앙에 대한 새로운 통찰력을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성장했다. 중부 독일의 한 목사는 “그들은 진정한 신앙이 어떻게 생겼는지 상기시켜 줍니다.”라고 언급했다.

[폭력에 관한 정보]

WWL 2017보고 기간에 1,207 명의 기독교인이 신앙 관련 이유로 사망한 것으로 기록되었으며, 1,329개 교회가 공격을 받았다. 이러한 공격은 사소한 공격(파괴, 파괴 행위를 저지르는 행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이는 WWL 2016보고 기간, 특히 사망한 기독교인의 수(7,106 명에서)보다 훨씬 적습니다. 공격당한 교회의 수도 또한 낮아졌다 (2425 명에서 감소).

특히 내전 상황에서 완전한 데이터를 얻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미얀마 내전 지역이 그렇다. 이라크 전쟁터와 시리아에서의 전쟁터. 수단의 누바산; Huga-Fulani 회교도 목동들에 의한 공격과 Boko Haram에 의한 공격을 동반한 한 나이지리아 중동 지역; 차드와 카메룬의 보코 하람이 겪은 고난; 무장 세력이 여전히 흔들리고 있는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일부 지역의 상황. 북키부 주, 북부 콩고의 ‘살인 밭’은 거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모든 분야에서 기록된 수치는 항상 너무 낮습니다.

통계 집계의 문제 이외에도 WWL 2016보고 기간에 기독교인들에게 매우 폭력적인 상황이 발생되고, 언론에 보고되고 경각심을 갖게 되어, 비교적 WWL 2017보고 기간 동안 어느 정도 폭력 사태의 수가 더 적지 않나 예상된다. 그래서 나이지리아와 주변 국가에서 보코 하람과 관련된 살인 (그리고 교회의 공격)은 이 수치에 거의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한 분쟁 상황에서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 어려움을 제외하고, 보코 하람은 여러 정부의 공격을 받았고 최근 몇 개월 동안 수세로 들어갔기 때문에 더 적은 살인 (및 교회 공격)을 일으켰을 가능성이 큼니다.

* 신앙 관련 이유로 기독교인이 사망
WWL 2017보고 기간에 신앙 관련 이유로 사망한 기독교인의 수는 1,207명입니다. 그것은 7,106 (WWL 2016보고 기간)에서 내려갔습니다. WWL 2017 국가에서 사망한 한 기독교인의 수는 948명이었고, 2017년 WWL 외 국가의 경우 225명이었습니다. 이는 78 %에서 19 %의 비율입니다. 또한 국가에서 살해된 34명의 기독교인이 계시되어 (3 %)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자료·사진=오픈도어선교회 제공

우정사업본부
KOREA POST

우체국 예금에서 우리 모두를 위한
미래의 꿈을 함께 하겠습니다.

똑똑한 금융

우체국으로 시작하자!

더 스마트해진
우체국 예금

고객센터 1588-1900

www.epostbank.go.kr

[평화칼럼] 통일의 나라 임하게 하옵소서



박종화 목사
(경동교회 원로)

빅터 프랑클이 유대인 포로수용소에 살면서 함께 수의를 입고 생사의 갈림길에서 하루하루를 살아야 했던 동족들의 모습을 아주 절실하게 그려냈다. 그 자신도 마지막 가스실

루씩 살아났다는 것이다. 예수님의 약속이다. 공중의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생명이 있는 피조물은 누구든지 창조주가 먹이시고 입히신다. 그리고 창조주는 피조물과 함께 창조의 아름다움을 노래하신다. 창조의 아머마한 축제가 항상 곳곳에서 벌어진다. 모든 피조물과 함께. 그런데 예수께서 한 더 나아가 편잔을 하시며 확인 하신다. 새와 백합화 와도 기쁨의 찬가를 부르시는 하나님이 너무도 좋아서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인간들과는 얼마나 좋은 잔치를 마련 하시겠느냐고. 그러기에 창조주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만드시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 완성하신 창조를 보고서 기뻐 노래하셨다. “참 좋다!”.

우리는 38선 이라 이름하는 철조망을 보면서 분노하며 살았다. 절망하며 살았다. 철조망을 사이에 두고 쌍방은 저주하고 적대시 하고 살아왔다. 결과는 쌍방이

무거운 짐에 허리가 휘고 불신과 저주로 마음마저 멀어지고 열어버렸다. 그런데 우리는 38선 북쪽에도 남쪽에도 새가 나르고 들꽃화가 만발하고 온갖 짐승들이 뛰어노는 비무장 지대의 아름다움을 알고 있다. 통일이 되면 아니 통일 이전에서 부터라도 이 동산을 세계 마지막으로 남은 오염되지 않은 “조류공원”, “동물원”, “식물원”으로 명명하자는 논쟁없는 마음의 합의를 이미 하고 있지 않나. 이들을 합쳐서 편의상 “세계 평화공원”, “한반도 평화동산”이라 부르면 된다. 야무진 엄청난 미래의 현실이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안다. 38선 철조망은 하나님이 수평으로가 아니라 수직으로 거두어 치우실 거라는 사실을. 사람이 만든 분노와 적대의 철조망은 하나님이 용도폐기를 선언하시고 철폐하시면서, 그 대신에 인간의 회개와 하나님의 용서 그리고 적대화한 두 나누어진 백성의 화해와 통

일 염원을 함께 수놓는 평화통일 금수강산을 허락하실 것이라는 진실을.

이제는 이런 하나님의 약속 실현에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 통일의 주인은 남과 북의 5천만 백성임을 확인하자. 주권재민의 국가가 참된 국가의 모습임을 누구나 알고 고백한다. 이제는 백성이 말하고 주장해야 한다. 국민을 위해 정부가 있지, 정부를 위해 국민이 있지 않다. 체제는 국민을 보호하고 행복을 누리게 해야지, 국민이 체제의 부속물도 아니고 종도 아니다. 그동안 남한 땅은 짧은 시일 내에 상당히 배불리 먹을 수 있게 되었고 정치사회적 자유도 상당히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자부심이 충천했다. 그런데 이제 집결된 촛불이 소리친다. 진정한 안보는 국민안보여야 한다. 체제안보가 아니다. 타락한 체제는 더더욱 아니다. 진정한 부와 행복은 공정한 경쟁과 노력의 결과이어야지, 불의한 특

혜를 통한 재화축적이나 유전무죄식의 불공정 사회생활이 아님을 크게 소리친다. 남과 북의 일상생활은 단순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차이가 많음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다. 북한의 백성들은 남한 백성들의 외침이 겉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될지도 모른다. 상대적이지만 그렇게도 배불리 먹으면서도, 그렇게도 자유가 넘쳐나는데도 무슨 촛불시위냐고 말이다. 사실 이 촛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켜지며, 우리 모두가 꿈꾸는 아름다운 그날, 우리의 2세 3세대에게는 훨씬 더 깨끗하고 정의로우며 자유롭고 진정으로 행복한 나라를 향한 것임을 알았으면 좋겠다. 한 가지 바람이 있다. 남한의 촛불이 북한 백성의 가슴 깊은 곳에서 켜지고 타오르기 바란다. 아주 평화적으로 은밀하게 서서히. 그리고 촛불은 온갖 거짓을 태우고, 아둔 비밀의 음지를 밝히고, 폭력이 나 전쟁위협을 불태우고 평화의 밝은 빛

을 가져온다는 신념을 공유하기 바란다. 아마도 통일과 평화의 그 날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희망의 촛불이 되어 타오를 것 이라고. 통일을 이 땅을 사는 우리 백성의 삶으로 준비하자. 통일이 가져올 평화를 주권재민의 권리와 책임을 다하여 지혜를 모으고 준비하자. 철조망을 거둬낸 자리에는 통일된 조국의 평화동산을 이루자. 세계만방에 이를 알리고 새로운 평화, 창조, 자유의 유망지로 제공하자. 그리고 남과 북의 백성은 평화와 자유와 정의의 참전리반도 금수강산을 마음껏 수놓아 보자. 이 미래는 분단을 초월하여 계시면서 분단의 철조망을 거둬내고 통일과 평화의 주님으로 이 땅에 성육하실 우리 주님이 허락하시는 세상이다. 이 일에 성실하게 동참하자. 그리고 전 세계에 연줄된 통일과 평화의 찬가를 준비하자. 이일을 위해 그 분은 “앞서가시는 주님”이시다

글=평통연대 제공

[김병구 시론] 크리스천 언론인·검사·국회의원들이 회개하고 ‘양심선언’ 해야



김병구 장로
(바른연구원선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어 성령으로 거듭난 크리스천이라면 이북의 김씨 세습 정권이 거짓과 증오와 살인 등 사탄의 속성을 유감 없이 발 휘하여 유지되고 있는 사탄의 세력임을 부인할 수 없다.

이 사탄의 세력이 김대중 노무현 등의 햇볕정책의 그늘 아래 언론 검찰 국회 등에 사탄의 하수인들을 심어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기독교 세력을 중심으로 하는 이명박 보수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소위 광우병 사태를 일으켰다.

그 불법사태가 언론의 거짓보도와 선동에 기인했던 것을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좌파 언론과 민주노총을 협박하지 못하고 실용주의라는 미명하에 종북 좌파세력의 성장을 방관한 이명박 정권이 비열함은 오늘의 대통령 탄핵의 온상을 제공하였다. 좌파 척결을 위하여 통진당 해산 전교조 불법화 국정교과서 제정 노조악법 개정안의 상정 등으로 자신들의 목을 조여오는 박근혜 대통령을 언론과 검찰이 합동으로 소위 최순실 테블렛 PC 를 조작하여 거짓에 바탕을 둔 검찰의 공소장을 근거로 좌파 국회의원들이 배신의 국회의원들을 쫓겨 대통령탄핵을 의결하

는 참으로 사탄의 칭찬을 받기에 마땅한 죄악을 범하고 말았다.

만약 사탄의 계획대로 대통령의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용인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탄핵이 용인된 시점으로부터 60일 후에 대선이 실시될 것이다. 대통령의 탄핵이 가져올 기독교인들을 포함한 애국 보수국민들의 실의와 사기 저하에 비하여 보수정권이 부패정권임을 인정받은 사기 충천한 좌파와의 대결에서 기적 이 없는 한 보수 정권의 재 창출은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18대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근소한 표차로 당선되었음을 기억해야 한다. 한국에서의 차기 좌파정권의 설립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미 자신의 대통령이 된 것처럼 날뛰는 좌파두목이 외치는 소리를 잊었는가? “보수를 불태우자!” “대통령이 되면 미국보다 먼저 김정운을 만나겠다” 북한의 핵 공격으로 방어하는 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드 설치를 반대하고 국회의원들을 중국에 보내 사드 설치를 무산시킬 것을 약속한 사람, 유엔이 북한인권결의안의 찬성여부를 북한의 김정일에게 물어서 결정해야 한다는 자가 대한민국이 대통령이 된다면 그는 북한의 낮은 단계 연방제의 실시를 추진하고 마침내 대한민국을 적화통일 시키는 데 앞장설 것이다. 지금 1,500만 크리스천이 살고 있는 대한민국은 참으로 큰 위기에 처해있다. 이것은 1,500만 크리스천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일 뿐 아니라 그들의 아들 딸 손자 손녀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인가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여기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용인을 막을 수 있는 세 개의 길이 있다. 그 첫째는 이번 탄핵 소추가 거짓과 증오에 기초를 둔 대한민국을 적화시키려는 음모의 일환이기 때문에 이를 현장에서 목격, 체포 또는 참여한 거듭난 크리스천들이 회개하고 양심을 고백하는 길이다. 예수를 한번 믿었다고 누구나 영생을 보장받는 것이 아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정의의 사람만이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 우리 주님의 가르침이다.

주님께서는 믿는 자들이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십자가에 달린 십자가의 길이다. 그 첫 번째는 이번 탄핵 소추가 거짓과 증오에 기초를 둔 대한민국을 적화시키려는 음모의 일환이기 때문에 이를 현장에서 목격, 체포 또는 참여한 거듭난 크리스천들이 회개하고 양심을 고백하는 길이다. 예수를 한번 믿었다고 누구나 영생을 보장받는 것이 아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정의의 사람만이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 우리 주님의 가르침이다.

주님께서는 믿는 자들이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십자가에 달린 십자가의 길이다. 그 첫 번째는 이번 탄핵 소추가 거짓과 증오에 기초를 둔 대한민국을 적화시키려는 음모의 일환이기 때문에 이를 현장에서 목격, 체포 또는 참여한 거듭난 크리스천들이 회개하고 양심을 고백하는 길이다. 예수를 한번 믿었다고 누구나 영생을 보장받는 것이 아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정의의 사람만이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 우리 주님의 가르침이다.

주님께서는 믿는 자들이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십자가에 달린 십자가의 길이다. 그 첫 번째는 이번 탄핵 소추가 거짓과 증오에 기초를 둔 대한민국을 적화시키려는 음모의 일환이기 때문에 이를 현장에서 목격, 체포 또는 참여한 거듭난 크리스천들이 회개하고 양심을 고백하는 길이다. 예수를 한번 믿었다고 누구나 영생을 보장받는 것이 아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정의의 사람만이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 우리 주님의 가르침이다.

주님께서는 믿는 자들이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십자가에 달린 십자가의 길이다. 그 첫 번째는 이번 탄핵 소추가 거짓과 증오에 기초를 둔 대한민국을 적화시키려는 음모의 일환이기 때문에 이를 현장에서 목격, 체포 또는 참여한 거듭난 크리스천들이 회개하고 양심을 고백하는 길이다. 예수를 한번 믿었다고 누구나 영생을 보장받는 것이 아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정의의 사람만이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 우리 주님의 가르침이다.

그런데 한국의 신문 방송 거의가 모두 촛불을 민심으로 보도하여 현재 재판관들과 국민들을 오도하고 있다. 이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애국 태극집회에 열 일을 제쳐두고 참여해야 한다. 그리고 언론이 보도해 주지 않는 애국세력의 집회를 각종 SNS에 실어날라 현재 재판관들과 일반 국민들이 진짜 민심이 탄핵기각에 있음을 보여 주어야 한다.

세 번째 길은 애국시민 단체에 헌금하는 일입니다. 자유민주대한민국이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가 대한민국의 존재하여 하나님을 찬송 예배하고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선교사를 세계 도처에 파견하고 있을 수 있음을 생각하면 각 교회가 단체로 헌금하는 일도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까?

그리고 목사님들은 자기 교회의 성도 중 언론인 검사 국회의원등과 필히 상담하여 그들의 영혼이 넓은 문이 아니라 좁은 문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영혼을 구할 소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신 목사님들이 반드시 해야 할 임무가 아니겠는가?

더욱이 이번 일은 사탄의 세력인 북한의 간첩 침략으로부터 하나님의 교회화를 구축하고 마침내 자유민주 통일을 이룩함으로써 참진리 방방곡곡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도들의 찬양과 기도가 충만케 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임을 명심해야 하겠다.

◆ 김병구 장로는 싱가포르 장로교단 장로로, 시카고 ‘약속의 교회’ 은퇴장로서 바른연구원선교회를 섬기며 기독교신문 ‘크리스천투데이’에서 칼럼니스트로도 기고하는 등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저서로는 ‘영원한 성공을 주는 온전한 복음’(한솜미디어 펴냄)이 있다.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침을 여는 기도]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연요한 목사

사람의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 받는 것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풍성한 사랑으로 저의 생명을 강하고 굳세게 하여 주옵소서. 대림의 계절에 더 가까이 나아가 회개하며 간절한 기도를 드리게 하옵소서. 우리가 집착했던 작은 것에서 해방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큰 사랑의 세계로 나가는 모티브를 찾게 하옵소서. 더 크게 봉사하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하게 하옵소서. 저에게 작은 시련을 주심은 주의 은총의 세계로 나아가오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믿고 날아올라 정말 형용할 수 없는 새로운 영의 세계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앞에 놓인 시련의 시간을 은총의 세계를 체험하는 기회로 바꾸어 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따르고 말씀에 순종하여 기쁨을 드리게 하옵소서. 한없는 은총으로 저의 모든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내가 고통 가운데서 주님께 부르짖고,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려 달라고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그의 성전에서 나의 간구를 들으셨다. 주님께 부르짖

은 나의 부르짖음이 주님의 귀에 다다랐다.”(시18:6) 하나님만이 저를 구원하시며 온전케 하실 수 있으십니다. 우리의 희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주님 앞에 내가 그의 도우심을 간구하게 하옵소서. 이제까지의 신앙생활을 돌아보고,

대림절을 맞아 하나님께로 나아가 겸손히 회개하며,

감사함으로 경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을 붙잡게 하옵소서.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함을 배우게 하옵소서. 우리가 극한적인 어려움에 처할 때 저 높은 곳을 쳐다보며 하나님께 고스란히 자신을 맡길 믿음을 주옵소서.

오로지 하나님 품속에서 고이 쉬게 하옵소서. 저의 희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주님만이 홀로 저의 구원이시고 저의 영광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저의 힘이신 바위, 어떤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만 따르게 하옵소서. 마음에 있는 격정은 우리의 피난처이신 하나님께 내어놓습니다.

기쁨으로 모두를 바쳐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꾸밈없는 마음으로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저에게 더욱 넘치는 사랑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규제 150126-홍-68018

NAVER

서울제이에스병원 검색

www.sjshospital.com

퇴행성관절염은

서울제이에스병원에서

일요일

진료시작

서울 제이에스 병원

SEOUL JS HOSPITAL

진료시간

평 일 : 10:00 ~ 18:00

토요일 : 09:00 ~ 15:00

일요일 : 14:00 ~ 18:00

점 심 : 12:30 ~ 13:30

찾아오시는 길

■서울시 강남구 학동로 233, 3~5층 (강남구 논현동 90-7번지, 디와이빌딩)

■7호선 학동역 10번출구, 도보3분

전화상담 및 예약문의 02.533.3600

www.sjshospital.com

서울제이에스병원 대표원장 송준섭